



동절기 준비의 시작!!

뽁뽁이 잠그미



특허출원 제10- 2020-0128316호

제품의 특징

아그론 뽁뽁이는 42.6%의 높은 보온율과 71.1%의 광투과율을 가진 보온자재로 측면 커튼을 올렸다 내렸다 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햇빛을 볼 수가 있어 광합성 작용을 오래할 수 있습니다. 지퍼를 이용한 출입문은 출입 시에 편리하며 하우스 내부의 온기를 빼앗기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차단합니다.

제품의 기능

- 뛰어난 보온력과 내구성을 가진 투명한 보온재는 아그론 뽁뽁이가 유일합니다.
- 측면 커튼으로 사용시에 감긴 물의 부피가 작아 공간 걱정이 없습니다.
- 아그론 뽁뽁이는 온실 내부의 습기를 흡수하지 않아 습도 유지관리가 원활합니다.
- 권취식 커튼으로 사용시 일석삼초(광투과율 / 보온력 / 습도관리)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켜 줍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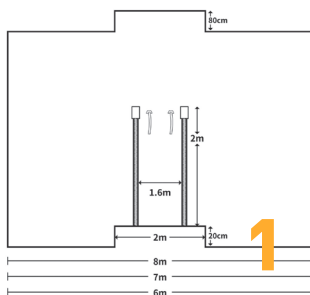
쉬운설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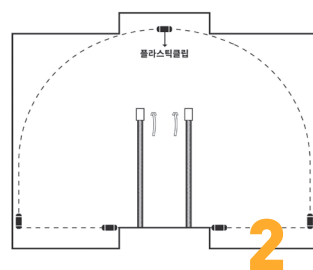
내구성

뽁뽁이 잠그미 시공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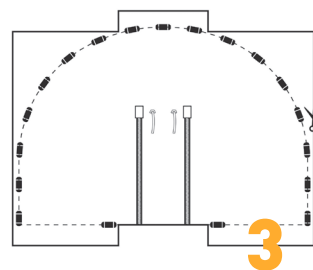
시공시 고정방법  플라스틱클립  페드 스프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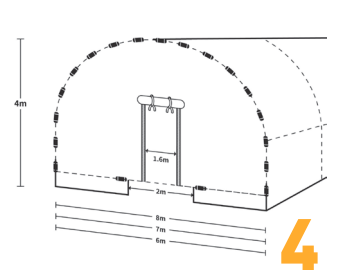
뽁뽁이 잠그미의 지퍼 출입구 위치를 온실 중앙에 설정하고 하우스패드나 클립을 준비



준비한 클립을 이용하여 양쪽 서까래와 중앙 상단에 뽁뽁이 잠그미를 고정



뽁뽁이 잠그미를 잘 펴서 당기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서까래에 시공하고 남은 부분은 가위로 잘라 마감



하단에 프레임이 있을 경우 클립으로 시공하고 프레임이 없을 경우, 흙으로 덮어 마감

단열 · 보온 콤팩트!

직조+뽀뽀이 확실하게 책임진다

"기준 뽀뽀이(에어캡 Bubble wrap)는 온실 측면에 고정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비해 직조+뽀뽀이(상품명 : 뽀뽀이 잠그미)는 뽀뽀이에다 한 겹의 직조필름을 부착시킨 획기적인 제품으로, 권취(卷取) 개폐기를 활용하여 길고 내릴 수 있으며 수명 역시 특수 자외선(UV) 차단제를 적용시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."



개폐를 하기 위해 버블캡에 직조필름 한 층을 더 설치해둔 모습



측면에 고정형 기성 제품 뽀뽀이가 설치되어 있다.



자매가 부착되어 개폐가 용이하게끔 제작된 모습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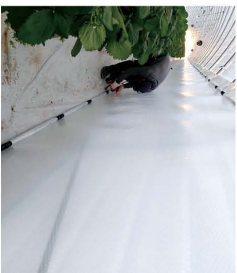
직조필름과 뽀뽀이가 부착된 시개발, 직조+뽀뽀이로 완벽 밀폐를 자랑하는 2중 온실 안문.

올 겨울은 유난히 한파가 매서웠다. 그래서 시설원에 농기들은 온실 내 1℃라도 더 보온을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... 2~3개월 전 미리 단열 · 보온을 위해 특별한 농자재를 설치, 그 효과를 특별히 보고 있다고 해서 ~ 찾아가 보기로 했다. 지난 1월 18일 한박 눈이 평평 오는 날, 큰 길에서 현장 허우스까지 100m 남짓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폭풍 빠질 정

도로 눈이 쌓여 있었는데, 그 곳에서 열심히 눈 을 치우고 있던 농가 한 분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 해주며, 온실 안으로 안내한다. "출지요, 오시는 라 수고가 많습습니다. 농경과일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저번 호에 눈에 띄는 단열 · 보온재가 있어서, 11월경에 구매 후 설치하게 되었죠." 15 년째 시금치, 피망, 밀론 등 친환경채소를 전문 으로 재배하고 있는 윤은영 씨가 첫 마디부터 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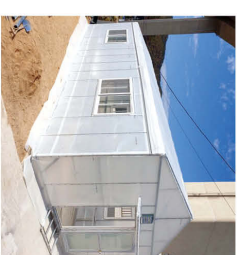
전남농업기술원 명기시험포장에 설치하고 있는 직조+뽀뽀이.



전남농업기술원 연구사들이 직접 시공하는 등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다고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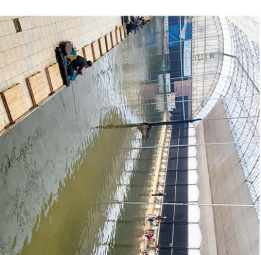
양측면에 권취 개폐기를 활용, 개폐가 용이하게 되고 있는 모습.



보온 단열이 확실한 직조+뽀뽀이로 시공되고 있는 농촌체험장.



4개월용으로 사용되는 농촌체험장의 시공은 트랜드 파부채, 직조+뽀뽀이.



밖은, 채광은 물론 트롤하고 오랜 수명이 장점이 직조+뽀뽀이가 설치된 실내 나무터.

세하게 설명을 이어간다. "한 번 보시지요. 여기는 워낙 바람도 세고 추워서 ~ 하우스 측면엔 뽀뽀이가 좋다고 해서 설치했는데 문제는 개폐가 어렵습니다. 갠아 올리면 단열 공기층이 터져버리기 때문이지요. 한데 직조+뽀뽀이가 재조합된 것이 있길래 먼저 적용해보았습니다. 보시다시피 앞뒤는 전부 설치했지만 측면은 기준 뽀뽀이가 있기 때문에 ~ 그 겹에다 직조필름 한 층을 더 보강, 권취 작동 시 켈보려고 해 둔 상태이지요." 2중 하우스 앞뒷문에다 모두 직조+뽀뽀이를 설치했는데 각각 지퍼를 부착, 쉽게 열고 닫을 수 있게 해 둔 것이 보기 좋았다. 시금치 정식한 곳을 보여주며 "적어도 1℃ 이상은 보온이 되는 것 같아요. 차갑고 세찬 바람 그 자체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내부 온도 유출도 차단되는 만큼 단열 보온효과까지... , 여하튼 만족합니다." 윤은영 씨가 이렇게 덧붙여 강조한다.

이 제품은 서울 소재 엠에스테크(주) (☎ 02) 515-9970)에서 2여년 연구 개발을 통해 상품화에 성공하였는데 기존 뽀뽀이의 단점들을 획기적으로 보완, 개선하였다. 즉 겨울 한철 단열 · 보온에만 사용되면 고정형 뽀뽀이에다 직조필름을 부착시켜 △ 개폐가 가능한 4개월용으로 활용 가능하게 제작하였으며 △ 특히 농업용 자외선(UV) 차단제를 적용,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△ 또한 시설 하우스는 물론 농촌체험장, 실내 나무터, 다용도 창고 등 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시공이 가능하며 △ 무엇보다 설치가 간편하다고 한다. **문의** | 김수경 씨

동형 자체청고 외피 파부채로도 활용된 직조+뽀뽀이.

최근 하우스를 아주 광범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직조+뽀뽀이가 아주 제격이라고.

폭이 6m 까지 제품화되어 나오므로, 광폭 하우스 다용도 시설에도 적합한 직조+뽀뽀이.

규모가 큰 실내 나무터에도 오케이, 직조+뽀뽀이로 시공 완료된 전경.

